善惡自選

我只是盼你走出劫難
真相是你久遠的思念
在黨文化瀰漫的世間
別再被欺世謊言矇騙
走好未來的路很關鍵
人都得在善惡間自選
因為天體正在劇變
因為舊的在解體
因為走向未來需要檢驗

그치다

머리와 꼬리 잘라내고 기름에 튀겨
용의 고기를 볶는다네
무간아귀(無間餓鬼) 어찌 뼈하나 남기리오
백년 미쳐 날뛰면서
하늘땅과 싸워 온
망나니 꼴
붉은 마귀 해체되면 중생들 마음근심 덜리라

救天穹

通天法柱腐鏽斑斑
各穹王主老態蒼然
再造洪宇一念動天
意如金剛力挽狂瀾

歌詞

천궁을 구하다

하늘로 솟은 법주(法柱) 삭고 녹슬어 얼룩지고
각 궁(穹)의 왕과 주(主) 노태(老態)가 창연(蒼然)하네
홍우(洪宇) 다시 만듦에 일념으로 하늘을 움직이니
금강처럼 굳센 뜻 위급한 국면을 되돌리리라

神韻

歌舞台上動乾坤
樂池管弦萬馬奔
解體舊勢紅樓墜
慈悲甘露天地春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수련인이여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찾으라
갖가지 사람마음 많이 제거하고
큰 고비 작은 고비 빠뜨릴 생각 말라
옳은 것은 그이고
잘못된 건 나이니
다툴 게 뭐 있느냐

誰是誰非

修煉人
自找過
各種人心去的多
大關小關別想落
對的是他
錯的是我
爭甚麼

션윈(神韻)

춤과 노래 무대에서 건곤을 움직이고
악단석에서 울리는 관현악 만마가 질주하는 듯하네
구세력을 해체하니 홍루(紅樓)가 무너지고
자비로운 감로에 천지가 봄이로다

抱輪

抱輪兩臂圓
頂天獨尊站
垂慧看世間
環球小如彈
三界在腳下
世人塵中看
出世為何難
執著心難斷

산을 보다

망망한 산줄기
운무(雲霧) 하늘에 닿았구나
높이 오른들 얼마나 멀리 알리요
산 속에 신선이 앉아 있네

看山

茫茫一片山
雲霧連著天
登高知多遠
山中坐著仙

포륜(抱輪)

양팔로 둥글게 포륜하고
하늘을 떠받든 독존(獨尊)의 기세로 섰노라
지혜를 드리워 세간을 보니
환구(環球)는 작은 덩어리 같고
삼계는 발아래에 있는데
세인들이 먼지 속에서 보고 있네
세속을 벗어나기 어찌 이리 어려운가
끊기 어려운 집착심 때문이라네

換地

洪勢近
傳喜信
神洲漂去大紅印
一朝邪政東流水
春回大陸百花沁

홍석산을 거닐며

세월은 창창하고 천지는 늙었나니
홍산(紅山)의 신태(神態) 풍광 좋건만
성주괴멸(成住壞滅) 뉘라 벗어날 손가
허물어지고 풍화(風化) 됨에 스스로 지키기 어려워라

遊紅石山

歲月蒼蒼天地老
紅山神態風光好
成住壞滅誰在外
殘形風化難自保

땅이 바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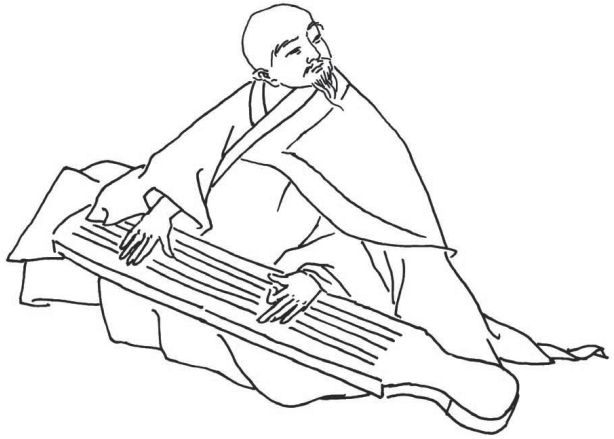
홍세(洪勢)가 다가오니
기쁜 소식 전해오네
신주(神洲)가 대홍인(大紅印)을 헹궈내니
사악한 정권 하루아침에 동으로 흐르는 물이라
대륙에 봄 돌아오니 백화(百花)가 향기를 뿜네

喝狼藥

邪黨文化逆天道
從小灌輸黨媽抱
畸形觀念要知醜
做人不是把黨孝
偷騙色鬥是共匪
五毛人格別賣掉
間諜醜態國人恥
一念一行鬼在笑

순회공연 길에서

차를 몰아 천릿길
신광(神光)이 차 밖에서 호위하네
누가 안에 타고 있는가
순회공연은 사람을 구도하네



巡演路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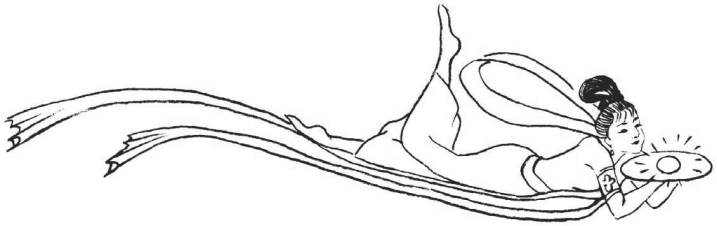
車行千里路
神光車外護
何人乘在內
巡演把人度

늑대 약(狼藥)을 마시다

사당(邪黨) 문화 천도(天道)를 거슬러
어려서부터 당 어미가 품어준다 세뇌하네
기형적인 관념 추하다는 걸 알아야 하거니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에 효도하는 게 아니라네
도둑 사기 색정 투쟁은 공산비적이 하는 짓이라
50전(五毛) 인격 팔지 말거라
간첩 짓 추태에 국민들 수치스러운데
일념일행에 귀신이 웃고 있네

紅潮末日

紅潮日落末場戲
糜爛腐敗是前序
邪政傾覆民怨氣
災滿地
起死回生全無計
眾生醒來存正義
全民三退惡黨斃
同協力
千古文明從新起



세인에게 주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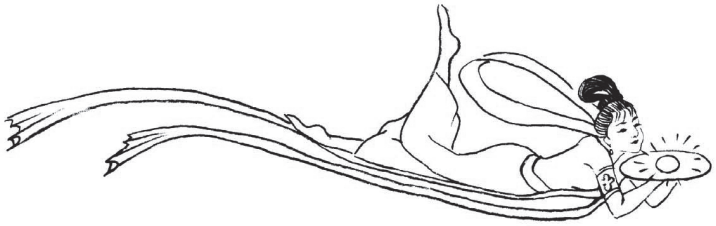
법을 얻으리라 맹세해 사람이 되었건만
대법이 전해지는데도 신(神)을 몰라보네
전단지 진상도 보지 않으니
사당(邪黨)이 세상을 속여도 무감각이네
법도(法徒)들 애타게 불러도 깨어나지 않으니
기연(機緣) 지나가면 기회 다시는 없으리라
천기가 드러나면 후회막급 혼이 놀랄 터
큰 겁(劫) 오면 급히 천문(天門)을 닫으리라

贈世人

誓為得法來做人
大法開傳不認神
傳單真相都不看
邪黨欺世木不仁
法徒苦心喚不醒
機緣一過誤時辰
天機一顯悔驚魂
大劫緊跟關天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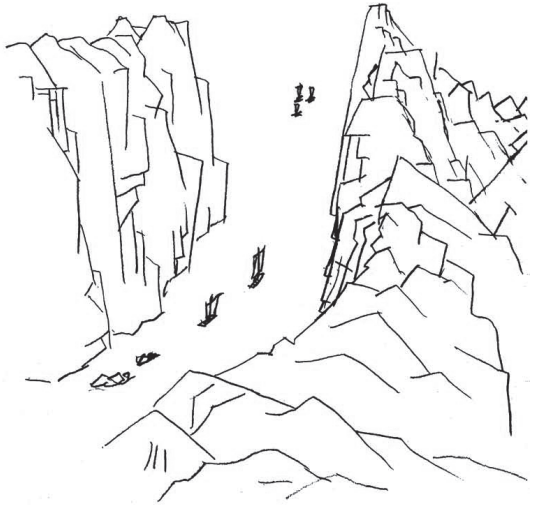
홍조의 종말

홍조(紅潮)의 해는 지고 연극은 막장인데
타락과 부패는 전주이자 서막이네
사악한 정권 쓰러지고 백성들 원한 치솟고
땅은 온통 재난이네
기사회생(起死回生) 길 전혀 없는데
깨어난 중생이 정의를 지키네
전민(全民)이 삼퇴(三退)하면 악당은 죽으리니
함께 협력하여
천고의 문명을 새롭게 일으키세



再轉

法輪再轉山河變
天地淨化
人出善念
傳統復明
乾坤諸事真相顯
佛道神仙走世間
除盡邪念人歸正
了此大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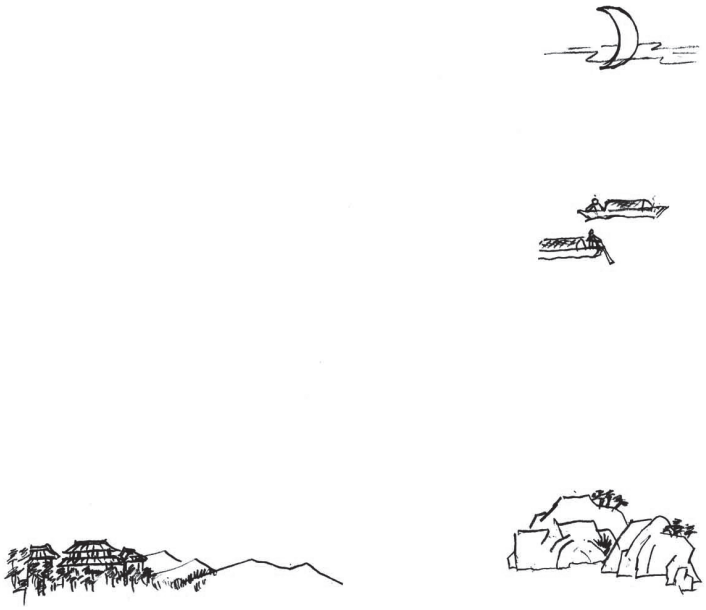


무제(無題)

꽃 비록 곱지만 인심(人心) 이지러졌나니
달이 다시 둥글어도 구도받기 어렵다네
대지가 무너지고 하늘은 재앙을 내리는데
9평을 보고 안개처럼 짙은 미혹을 깨뜨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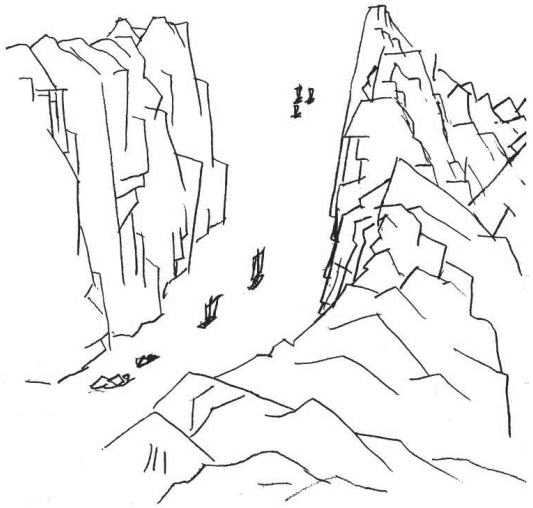
無題

花雖好人心殘
月再圓得救難
大地廢天降罪
看九評破迷嵐



다시 돌리다

法輪(파룬)을 다시 돌리니 산하가 변하고
천지가 정화되고
사람에게는 선념이 나와
전통(傳統)이 회복되는구나
건곤의 온갖 일 진상(眞相)이 드러나고
불도신선(佛道神仙) 세간을 거니네
사념(邪念) 다 제거되면 사람은 바른 길로 돌아가리니
이 대원(大願) 이루어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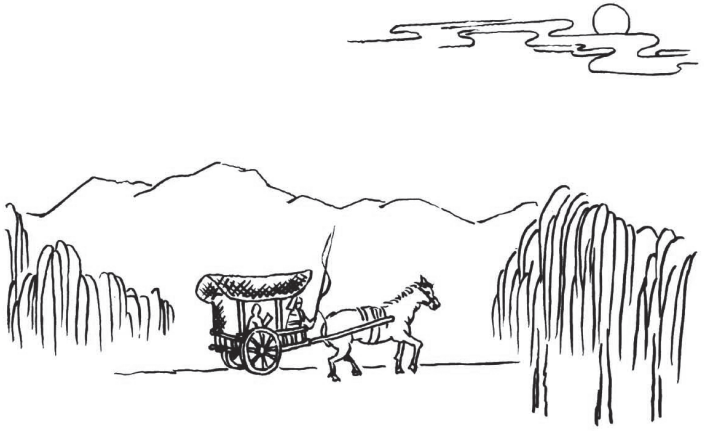


甚麼是中華文明

運動連番
血雨風腥
打掉的是文化菁英
文革再把文物毀
讓子孫理念不正歷史不清
黨可以任意灌輸謊言
目地明確操作系統極精
誰讓你們把黨引進看走了眼睛
人是神的傑作
不是紅龍的子孫兵
中國不是中共
別混淆視聽
黨文化是邪說
中國有五千年的積奠
那才是中華文化的結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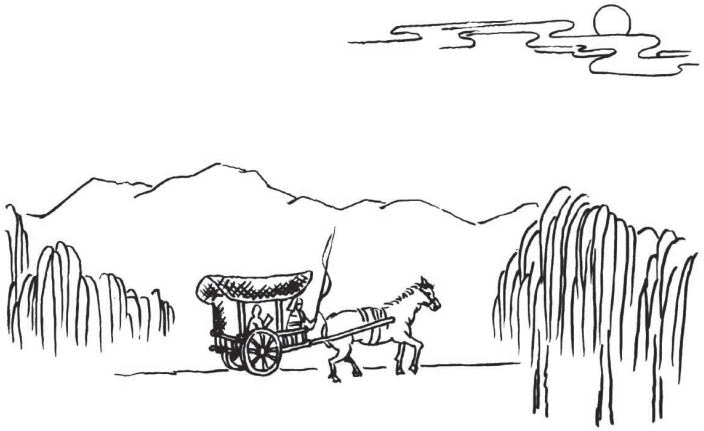
가소롭구나

당초에 인간추물에게 가해하지 말라 경고했건만
사당(邪黨) 무너지고 추적 조사하면 너는 어쩌려느냐
대세가 이미 기울었으니 도주할 길 어디 있느냐
독을 뿜는 큰 입 참도(斬刀)보다 예리할쏘냐



貌

當初告誡人丑勿加害
邪黨垮台追查你何乃
大勢已去哪裏是逃路
洩毒大嘴能比斬刀快



무엇이 중화문명인가

운동이 끝없이 이어지고
혈우(血雨)에 피비린내 진동하네
때려 부순 것은 문화의 정화요
문화대혁명은 문물 또한 훼손했네
자손의 이념을 바르지 않게 하고 역사를 모르게 하여
당이 제멋대로 거짓말을 부어넣을 수 있게 했네
목적이 명확하고 조작체계 극히 치밀한데
누가 당신들의 판단을 흐려 당을 끌어들이게 했는가
사람은 신의 걸작이지
붉은 용의 자손이나 병사가 아니로다
중국은 중공(中共)이 아니거니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하지 말라
당문화(黨文化)는 사악한 설이로다
중국은 5천년을 다져온 것이 있나니
그것이야말로 중화문화의 결정(結晶)이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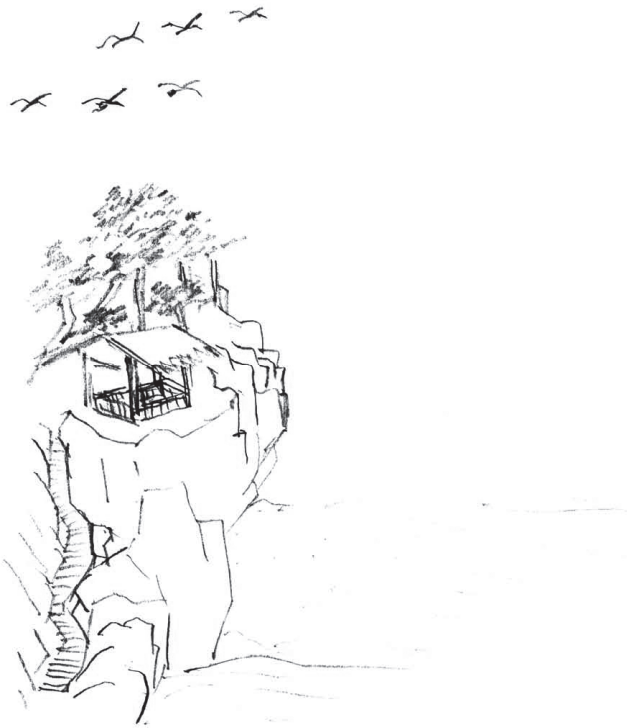
陰陽反背

陰陽反背世風傷
堂堂男兒無陽剛
優柔寡斷娘娘調
心胸狹小太窩囊

女人剛尖逞豪強
浮躁言刻把家當
賢惠秀美風韻無
柔媚老妖暗中娼

정자에 누워

정자에 누워 슬며시 눈을 뜨니
머리는 산등을 베고 발은 봉우리에 걸쳤도다
용이 날고 봉황이 나래 펴고 선녀가 춤을 추거니
훗날 귀위(歸位)할 때면 바람을 타고 가리라



臥長亭

睡臥長亭目微睜
頭枕山脊腳墊峰
龍飛鳳展仙娥舞
它日歸位駕長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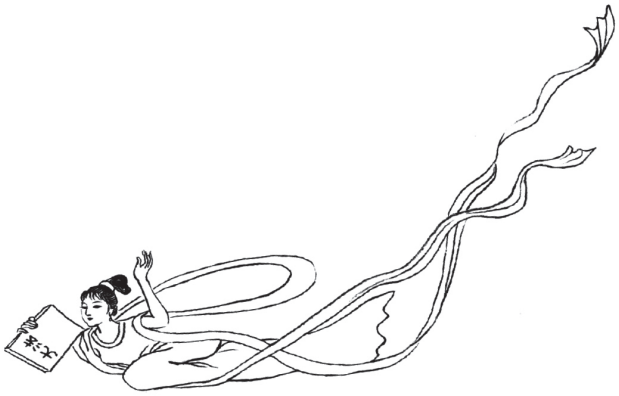
음양반배(陰陽反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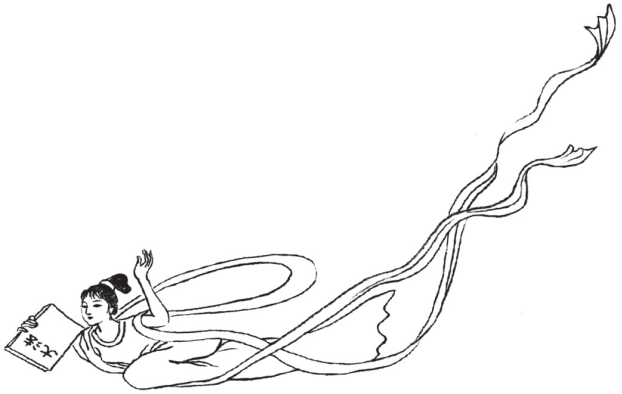
음양이 뒤바뀌어 세상 기풍 손상되니
당당한 사나이의 양강(陽剛)함이 없네
우유부단 여자 같은 말투에
흉금이 좁고 너무나도 나약하구나

여인은 드세고 날카로운데다 난폭하고
경박하고 신랄한 말투로 주인노릇까지 하네
어질고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 없으니
교태부리는 요괴요 암중 창녀라네

正法

一念驚震大穹外
欲救蒼生除眾害
萬重腐朽舊勢阻
身入塵世更知壞
一路正法劈天蓋
不正而負全淘汰
蒼天欲變誰敢擋
乾坤再造永不敗



정법(正法)

일념(一念)에 대궁 밖까지 놀라게 하거니
창생을 구도하고자 뭇 해로움을 제거하네
겹겹이 썩어빠진 구세력이 방해하는데
몸이 속세에 드니 더욱 나쁨을 알았네
정법의 한 길에서 하늘을 뒤흔들거니
바르지 못한 부(負)적인 것들 전부 도태되리라
창천(蒼天)이 변하려는데 뉘라서 감히 막을 소냐
건곤을 재창조하여 영원 불패(不敗)케 하리라